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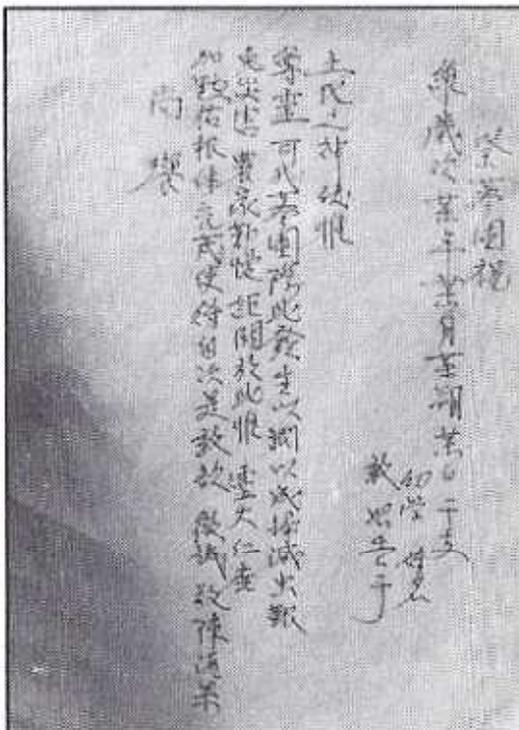
# 인삼과 금산지역의 문화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안용산

## 1. 인삼과 민속

금산에서 인삼은 작물이 아니라 산신령이 점지한 영물(靈物)이었다. 지금처럼 인삼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 인삼은 사람의 공력만이 아니라 산신이 점지해주는 사람 이상인 모심의 대상이었다.

모심의 대상이었기에 삼장밭을 다 꾸미고는 삼장제를 산신제로 모셨고. 삼장제를 지낼 때 산신령의 수호자인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 지켜보거나 다녀가면 인삼이 잘 자란다고 믿었다. 그런가하면 굿은 일을 당하거나 본 사람은 본인은 물론 남들도 삼장밭에 가지를 았았다. 또한 삼장밭 주인이 죽으면 삼장포에 부고를 내어 주인의 죽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삼장제 축문



삼장포 부고

삼장제는 지난 해 가을 갈잎을 넣어 새로 만든 인삼밭에서 그 이듬해 봄에 지낸다. 삼을 심은 후 삼장밭로 삼장을 꾸미고 난 다음 청소를 하고 잎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인삼의 싹이 트는 것을 입노라고 하는데 입노는 한자로 입뇌(立腦)인 것을 말한다. 즉 머리를 세운다는 뜻이다. 인삼의 싹이 트는 부분을 뇌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인삼을 사람 이상의 존재로 여겨 부여한 명칭으로 볼 수 있다.

입노를 할 때 쫄이면 보통 음력 3월 말경인데 각 집에서는 삼장고사를 지낼 준비를 한다. 입노한다고 해서 아무 날이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기복덕을 보아 날을 잡는다. 날이 정해지면 제주는 주인이 하는데 여자는 제주가 될 수 없다. 제주는 제일 3일 전부터 문 앞에 문종이, 숯, 솔가지 등을 꽂은 금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한다. 원래 굶은 일을 본 사람이면 으레 인삼포에 가지도 앓았고 설령 남의 일을 할지라도 그 달을 넘기고 일을 하였다. 삼장제 역시 그 사이 굶은 일이 생기면 달을 넘겨 날을 새로 받는다.

날을 받은 3일이 무사히 지나면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날이 저물기를 기다린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쫄이면 정성껏 준비한 제물로 돼지머리, 쌀, 삼사실과 등을 차려 삼장으로 간다. 제를 지내는 곳은 삼장 가운데 가장 긴 고랑으로 깨끗한 돌을 놓거나 짚을 추려 만든 제단에 진설을 한다.

진설이 끝나면 불을 밝힌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사용하여 문종이로 만든 심지를 3발로 세워 놓는다. 그리고 향불을 사른 다음 두 번 절을 한다. 절을 한 후 삼장통에 3회에 걸쳐 붓는다. 술잔을 올린 후 축원을 하거나 고축을 하는데 축문이 있는 경우 축문을 읽는다. 고축이 끝나면 재배를 한 후 소지를 올린다. 소지덕담은 주로 무만큼 크게 해달라고 축원을 한다. 소지가 끝나면 재배를 하고 음복을 한 다음 집으로 돌아온다.

삼장제를 지낼 때 호랑이가 바라보거나 그 다음날 호랑이 발자국이 있으면 삼이 대단히 잘된다고 사람들은 믿었다고 한다.

## 2. 인삼생산 과정

### 1) 인삼밭 선정

인삼을 넣을 밭은 흔히 일년을 묵힌다. 인삼을 심으려면 무엇보다 밭을 잘 선정하여야 한다. 밭의 토양은 질밭이라고 하는, 모래가 없으며 황토흙이 있는 밭이 좋다고 하며 인삼이 반음반양의 생육 특성에 따라 북쪽이 터져 있

는 음지밭을 봄부터 묵혀 이듬해 봄에 인삼을 심는다.

## 2) 인삼밭 거름

아주 오래전에는 인삼밭에 거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시근이라 하여 종삼을 한 번 이식하던가 아니면 직과라 하여 아예 이식을 얹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봄에 새밭에 심고 늦가을에 캐서 집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이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라고 한다. 이때에는 인삼을 넣을 밭에 땅도토리나무라 하여 가랑잎 또는 갈잎이라 부르는 풀을 사용하였다. 인삼에는 이 풀이 제일이라 한다. 근래에 와서는 콩이나 닭똥 거름을 인삼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 3) 갈이

인삼을 넣을 밭은 갈어야 하는데 많이 갈면 갈수록 좋다고 한다. 이것은 4-5일에 넣은 풀을 썰지 않고 그대로 갈았는데 보통 5일에 한번씩 갈았다고 한다. 이것은 양근이라 하여 햇빛에 태우기 위하여 자주 갈았고 이것도 이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였다고 한다.

## 4) 삼장통치기

이듬해 심을 삼밭을 땅이 얼기 전인 초가을에 삼장통을 춘다. 가을에 통을 쪼야 겨우내 얼었다 풀어졌다 하며 얼부푸러져 흙살이 고와진다. 삼장통은 삼을 심는 높은 통을 원통이라 하고 사람이 다니는 곳을 질통이라 하여 구분을 하여 통을 추었다. 삼장통을 출 때는 골이 신을간을 향하도록 쇠로 좌향을 잡아 통대가 높은 쪽이 북향을 향하도록 하였다.

## 5) 삼씨놓기(삼심기)

종삼을 심기 위하여 봄부터 묵히고 가다리친 삼밭에 가을이면 삼종자를 놓아야 한다. 먼저 통을 추고 본밭의 흙 위에 모래가 섞인 색별흙을 약 1cm 펴 그 위에다 종자판으로 누른다. 그러면 구멍이 총총히 나는데 그 구멍에다 일일이 손으로 구멍 하나에 씨 하나를 넣는다. 인삼씨를 다 넣었으면 다시 그 위에다 색별을 펴고 겨울을 나기 위하여 풀로 삼장통의 원통을 덮는다.

요사이에는 종자판 대신 기계를 사용하여 통을 추고 씨도 뿌린다.

## 6) 가개꾸미기

봄이 되면 ‘삼장꾸민다’라 부르는 ‘가개’를 꾸미야 한다. 가개는 입묘하기 전에 통대로 앞뒤로 세우고 철사를 늘인다. 철사를 사용하기 전에는 처음에 장목, 대나무를 사용했으며, 이것도 없을 때는 다래넝쿨을 사용하였다. 철사를 늘인 다음 그 위에다 호밀대나 새때기로 만든 밭을 치고 다시 그 위에다 덧밭을 친 다음 짚으로 철사와 밭을 동여맨다. 동여매는 것도 예전에는 칩넝쿨을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천으로 만든 끈으로 맨다. 밭도 차광막이라 하는 임조로 만든 밭을 사용하고 있다. 호밀대로 밭로 사용하기 전에는 자작나무과의 물박달나무, 오리나무, 개암나무 등 북방계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덮다가 1920대 쯤부터 호밀대 밭을 쓰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삼장을 다 꾸몄으면 청소를 하고 삼장제를 지내고 그동안 일을 한 일꾼들을 불러 같이 제물을 나눠 먹었다.

## 7) 삼장 관리하기

삼장제도 지내고 여름철이면 풀도 매고 소독을 한다. 소독을 하기 시작한 것은 6.25부터라고 한다. 가을이 되면 삼장에 풀을 하여 덮는다. 삼이 겨울을 나자면 삼장풀로 덮고 겨울에 내리는 눈 때문에 밭을 내려야 한다. 밭을 한쪽에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꾸민다.

## 8) 삼밭집기

꽃이 피서 딸(인삼종자)이 맺기 전에 집어야 한다. 이것은 딸로 가는 영양분을 차단하여 뿌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한다. 주로 이것은 3년근을 집는데 더러는 2년근도 딸이 맺으면 집으며 4년근도 종자를 받을 것만 제외하고 집는다. 종자로 삼을 딸은 빨강계 익었을 때 따나.

## 9) 인삼캐기

인삼은 대서전에 캐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서깎기도 했다. 단오만 지나면 캐 수가 있지만 대서에 캐어야 삼의 약효가 좋고 말리기도 좋다. 삼을 캐는 도구는 호미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곡괭이도 사용하였다. 요새는 캐는 시기도 일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수삼으로 넘기고 저장고가 있기 때문이다.

## 10) 인삼깎기

주인집으로 가져온 삼은 큰 것, 작은 것 그리고 아주 작은 것으로 골라 아주 작은 것은 기보시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음 새벽 4-5시에 인삼을 깎을 사람에게 인삼 100개를 한몫이라고 하여 나눠준다. 인삼을 깎을 사람은 먼저 뿌리를 떼고 쉰 다음 집으로 가져가서 깎는다. 깎는 도구는 대나무칼과 베로 만든 수건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깎는다. 이때 중미를 너무 떼었다고 가끔 주인하고 큰소리가 오고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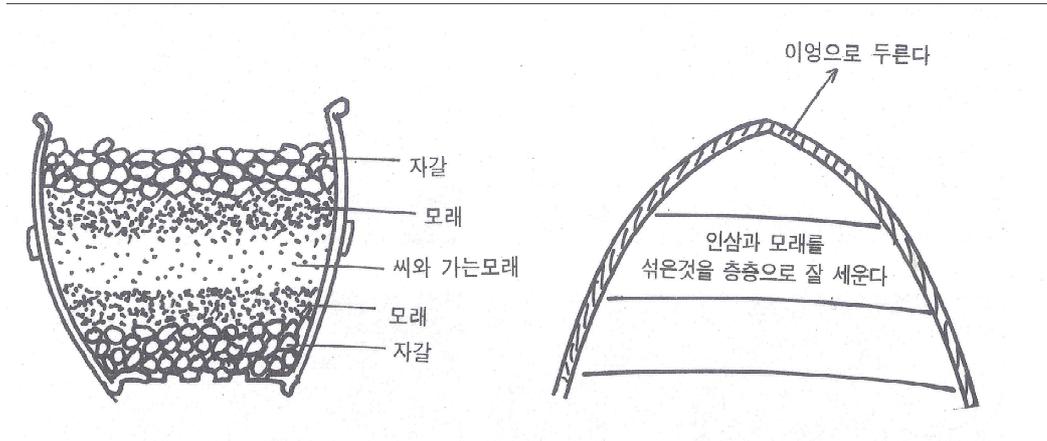
## 11) 인삼접기

인삼은 햇빛에 말리며 대서에는 하루만 말리면 되었는데 밤에는 방다림이라 하여 방에다 말린 다음 아침에 작은 것부터 골라 물질을 하고 물기를 말린다, 그리고 몸통이 고우라고 국수판 같은 송판에 비벼 왕골속으로 만든 끈으로 접은 삼을 동여맨 후 이가 안들어갈 정도로 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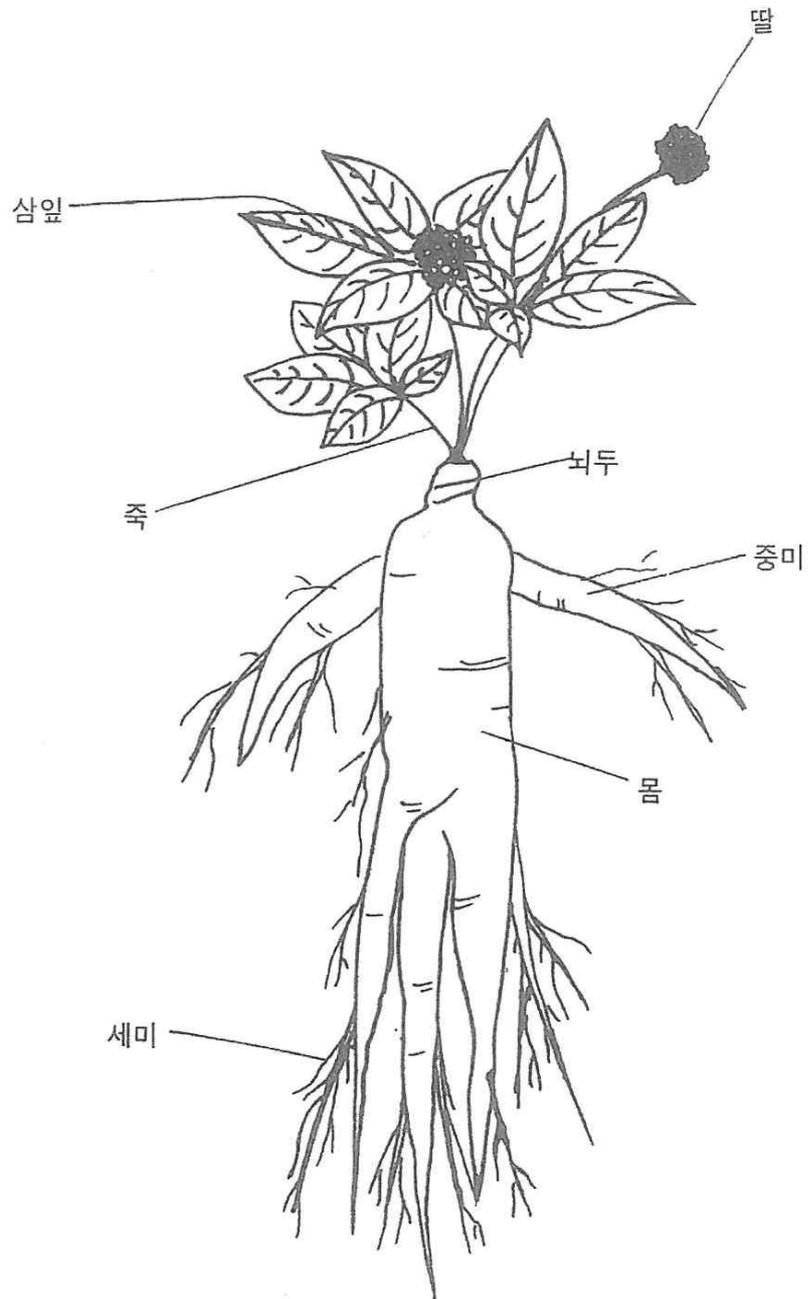
금산인삼은 인삼을 잘라보면 “심”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부분이 80% 차지하고 다른 지역의 인삼은 10% 차지하여 말리면 금산인삼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인삼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

## 12) 인삼종자 보관과 인삼 보관

인삼종자는 음력 8월에 따서 냇물에 씻은 다음 깨끗한 모래와 섞어 시루 같은 데에 보관하였다. 인삼 역시 지금처럼 밭에서 키우지 않고 1920년대까지는 가을에 캐다가 봄에 심을 때까지 집에다 보관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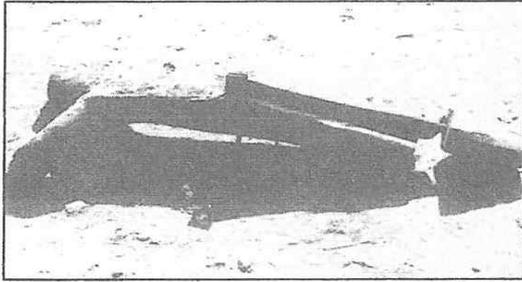


# 인삼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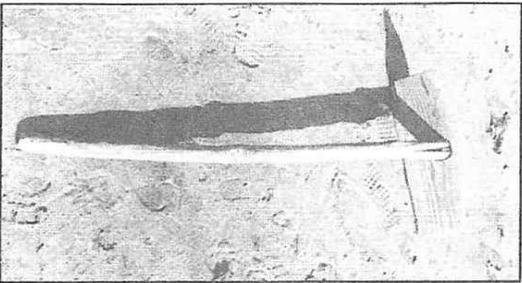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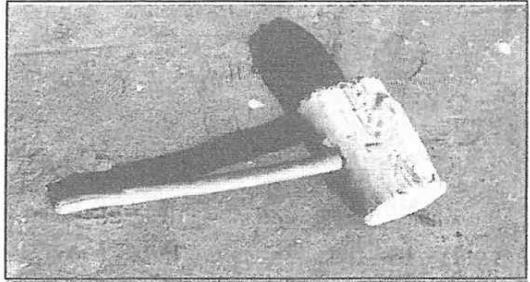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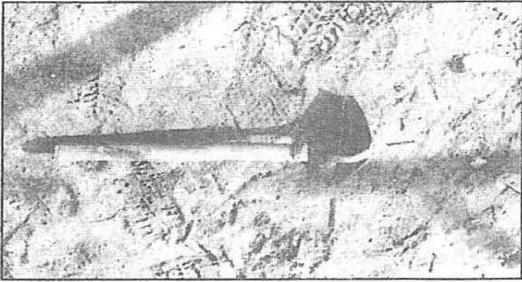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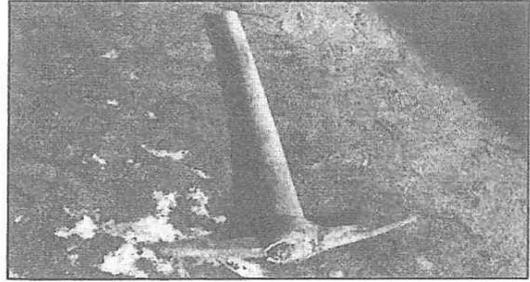


- 입노-인삼이 음력으로 3월 말경이 되면 땅에서 솟아오르는데 머리를 세운다는 뜻으로 입뇌(立腦)를 한다. 입노가 다 되면 삼장고사를 지낸다.
- 밥풀-인삼이 입노를 하기 직전에 뇌두 부분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 딸집는다-인삼의 씨앗을 딸이라 하는데 인삼 뿌리가 더욱 실하게 자라라고 어린 딸을 끊는 것을 말한다.
- 원통-삼장통을 출 때 인삼을 심는 두툼한 부분을 말한다.
- 질통-삼장통을 출 때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든 고랑을 말한다.
- 가개-흔히 삼장을 꾸민다고 하는 것으로 통대와 밭을 펴는 것을 말한다.
- 색별-모래와 흙이 섞인 흙을 말한다.
- 종삼-흔히 시근이라 하는데 일년생 인삼을 말한다.
- 기보시-미삼도 아니고 온전한 삼도 못되는 어중간한 인삼으로 조금 모자란 듯한 인삼을 말한다.
- 피-인삼의 껍질을 말한다.
- 삼장-인삼밭을 말한다.
- 밭-인삼밭을 꾸밀 때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것을 말한다.
- 통대-인삼밭을 꾸밀 때 세우는 지주목을 말한다.
- 질밭-땅이 야문 황토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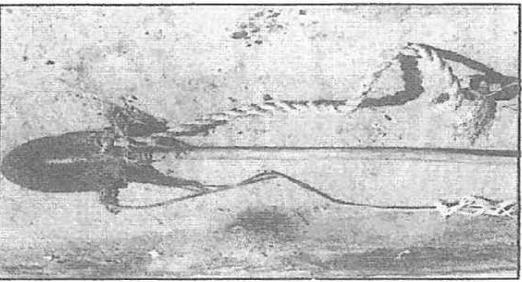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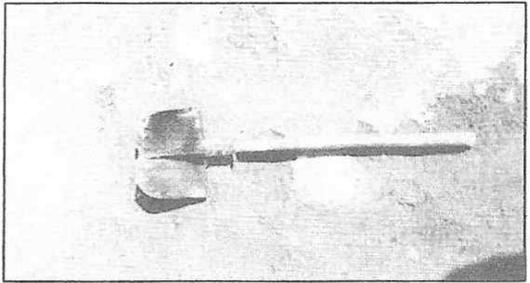
인삼농업의 농기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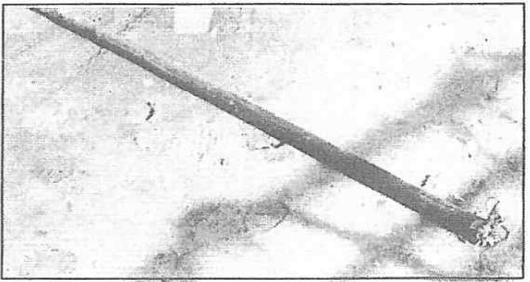
▲ 작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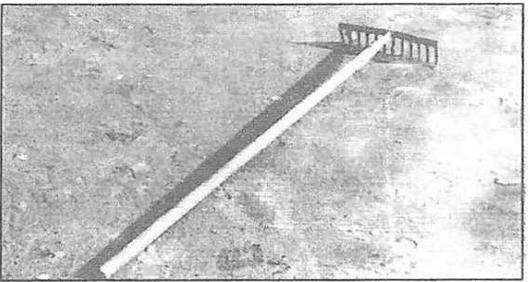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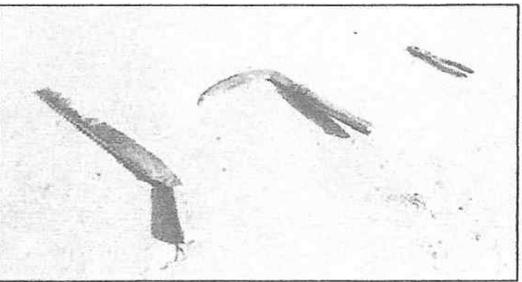
▲ 고무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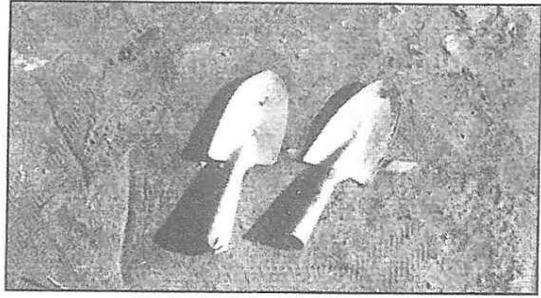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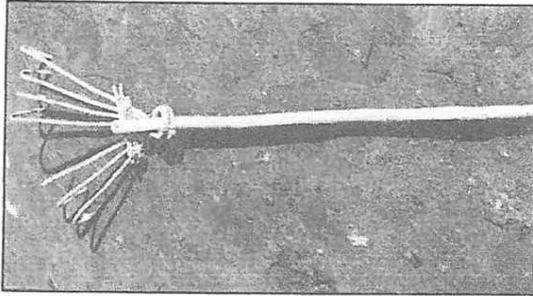


▲ 가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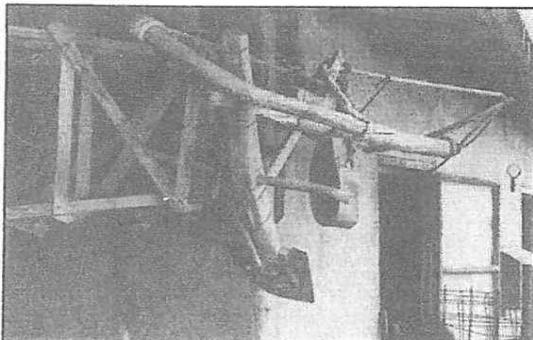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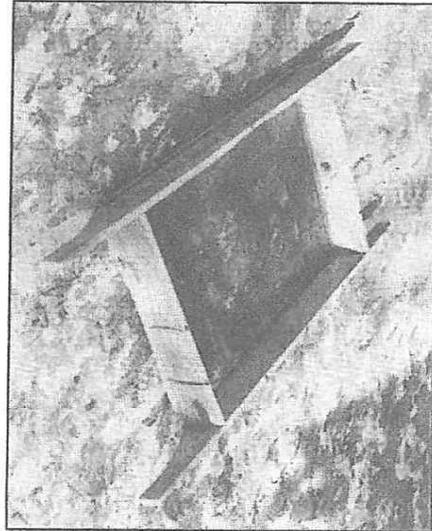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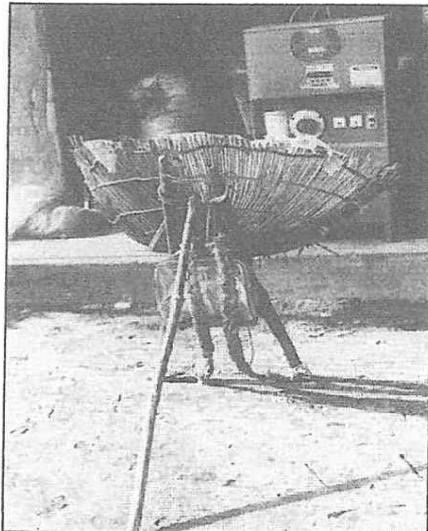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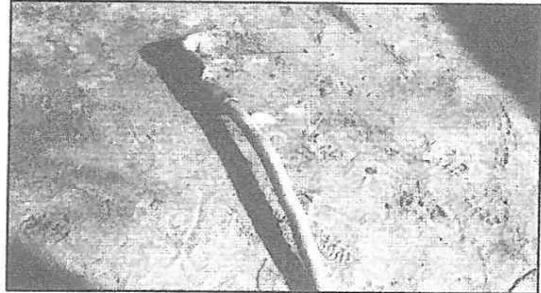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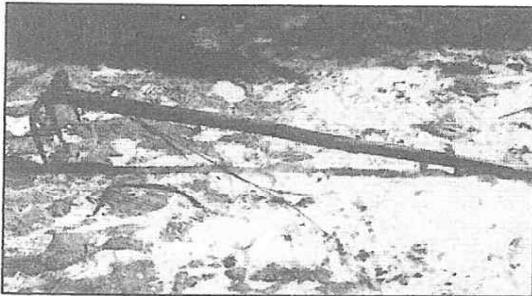


▲ 철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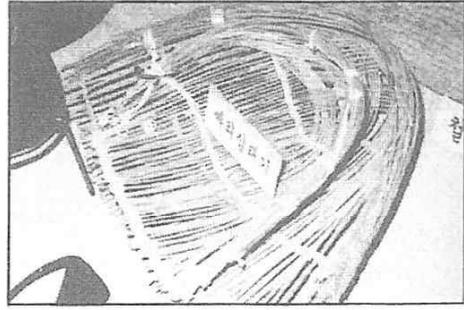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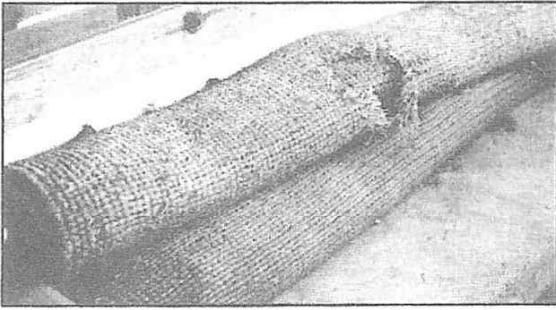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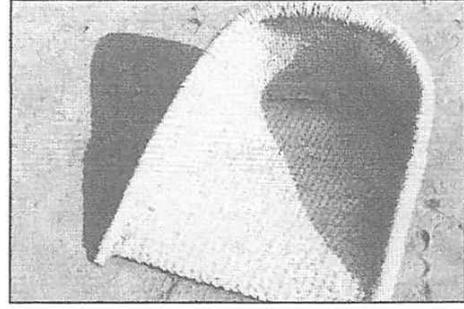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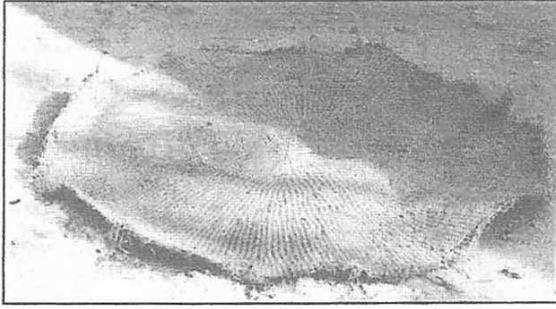
▲ 모종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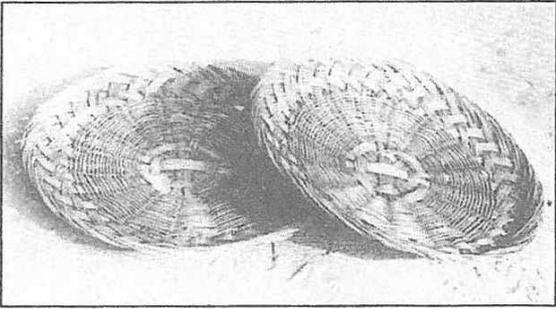
▲ 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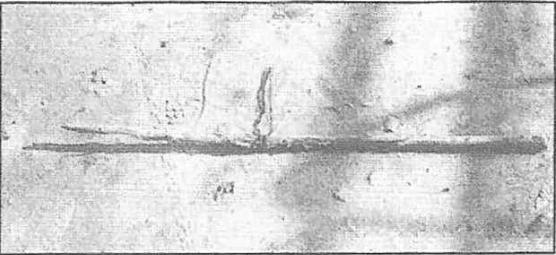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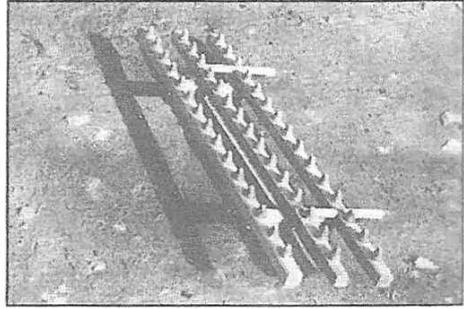
▲ 둥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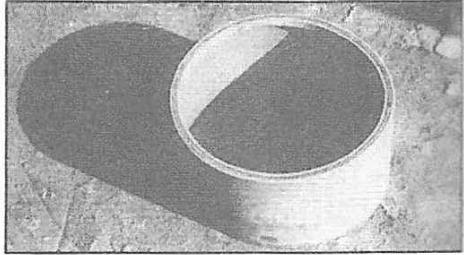
▲ 싸리삼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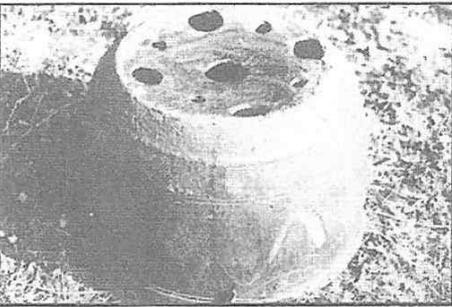
▲ 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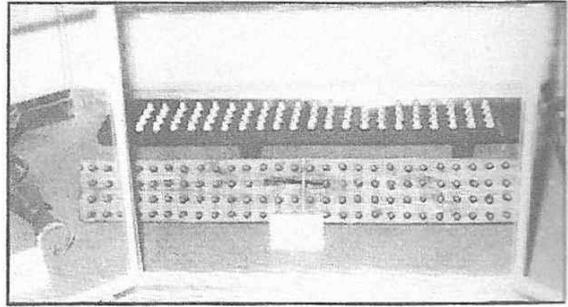
▲ 정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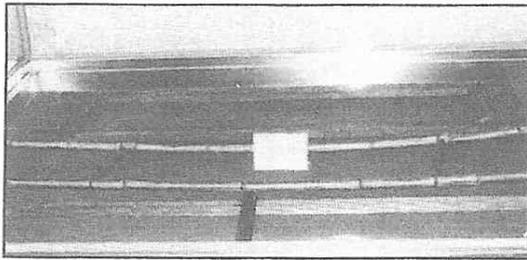
▲ 얼기미



▲ 시루 (삼씨앗보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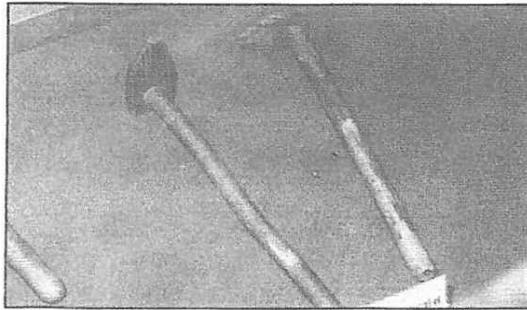
▲ 묘상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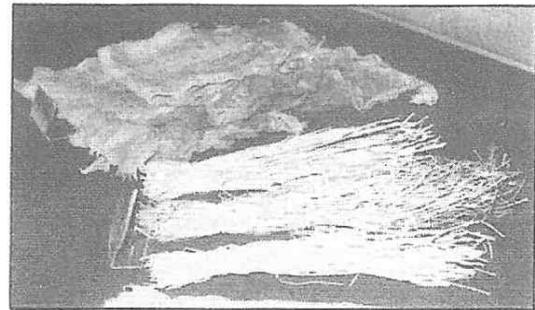
▲ 정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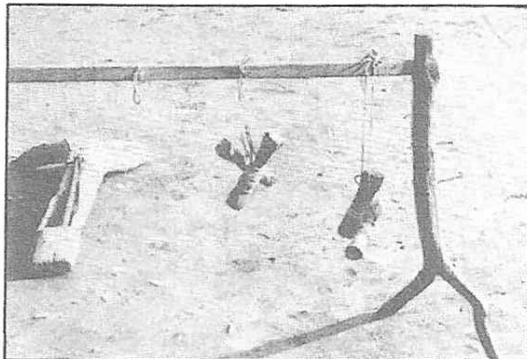
▲ 인삼심을 쓰는 삼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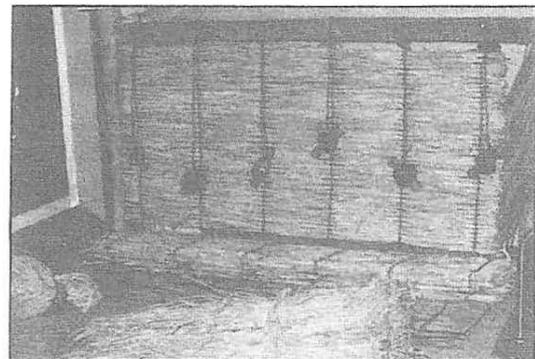
▲ 거름을 주기위해 골타는 도구



▲ 삼수건과 왕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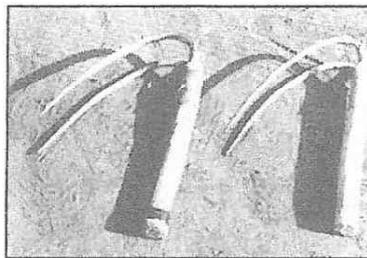
▲ 인삼발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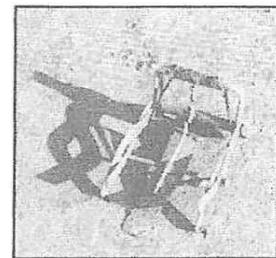
▲ 발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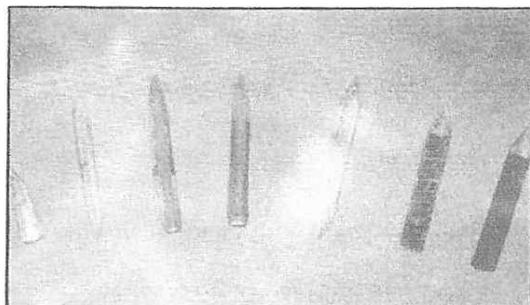
▲ 삼수건



▲ 인삼곡괭이



▲ 두더지덧



▲ 삼각는 칼



▲ 인삼도마

부록 : 설화를 통해 본 ‘인삼’이야기(강현모, 2009, 금산문화원)